

## 1. 러시아의 투자환경

### 1. 경제적 환경

러시아 경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1990년 소련 붕괴 직후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경제가 마침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2009년에는 GDP가 7.8%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2년에는 이미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되어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부문, 특히 소매, 정보통신, 부동산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금융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1인당 GDP는 2008년 처음 10,000달러를 넘어선 후(11,700달러)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8,616달러)을 제외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의 1인당 GDP는 14,037달러로서 BRICs 국가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sup>1</sup>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블라지미르 푸틴 전 총리가 6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적어도 향후 6년(재선에 성공할 경우 12년) 간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경제구조의 재편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과 세계은행(The World Bank)는 Doing Business 2013에서 조세부담의 완화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투자환

<sup>1</s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order=wbapi\\_data\\_value\\_2012+wbapi\\_data\\_value+wbapi\\_data\\_value-last&sort=desc](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order=wbapi_data_value_2012+wbapi_data_value+wbapi_data_value-last&sort=desc)

경 순위는 2012년 118위에서 2013년 112위로 개선되었고, 특히 조세부담 부분의 순위는 2011년 105위에서 2012년 94위를 거쳐 2013년에는 64위까지 개선되었습니다.<sup>2</sup>

물론 러시아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 중 중요한 것으로는 우선 지역적인 불균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의 분배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특히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불충분한 인프라는 운송과 유통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어 온 것처럼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법규 적용상의 문제,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불투명성,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역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복잡한 비자 시스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가진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주러시아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은 2012년 말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사업가들 중 98%는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데다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Those doing business in Russia are already fairly satisfied. (...) But there’s another 98 percent of American businesses that don’t come here, don’t know anything, have stereotypes about what the climate is here. We’ve gotta’ reach those folks.)”<sup>3</sup> 이런 지적은 우리 사업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up>2</sup> IFC and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3.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russia>

<sup>3</sup> <http://www.themoscowtimes.com/news/article/mcfaul-to-focus-on-economic-ties/471161.html>